

A Daily Bread

날짜: 5786년, 9월 27일 (2025년 12월 17일)

토라 롬: Miketz (그 후에)

주제: 눈에는 눈

창세기 44장 1–12절은 요셉 이야기의 도덕적 전환점입니다. 이 장면이 결정적인 이유는 도둑질 때문이 아니라, ‘측량하여 되돌려지는 정의’, 곧 미드라쉬가 말하는 *미다 케네게드 미다 (마다: 행한 만큼 되돌아옴; Measure for measure)*의 원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여호와의 정의가 기계적인 처벌이 아니라, 인간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적 정의라고 가르칩니다. 즉, 과거의 죄에 대해 동일한 고통을 반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실패했던 동일한 도덕적 선택의 지점으로 사람을 다시 데려오는 것이 정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한 행위는 복수에서 비롯된 속임수가 아니라, 그의 형제들의 내면에 오랫동안 얹눌려 있던 책임 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도덕적 시험이었습니다.

베레쉬트 라바의 미드라쉬는 요셉이 새로운 시험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형제들이 전에 저질렀던 먼저 죄의 구조 자체를 그들 앞에서 재현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한 번 위협받는 인물은 라헬의 작은 아들 베냐민이며, 아버지 이스라엘의 사랑을 그의 친 형 요셉처럼 받았던 그는 이제 형제들의 결정에 다시금 전적으로 맞겨지며 노출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금전이 개입되고, 조작된 증거가 등장하며,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형제를 희생시킬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은 이 유혹을 받아들여 요셉을 팔았고, 피 묻은 옷으로 죄를 감췄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동일한 영적 시험이 다른 얼굴을 하고 다시 등장합니다.

“미다 케네게드 미다”는 고통의 반복이 아니라, 다시 다가온 환경을 마주 할 때에, 선택의 반복인 것입니다. (“눈에는 눈”이라는 미다 케네게드 미다의 한 예는 실제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일전도 부족함 없이 지불해 주어야 한다는 정밀한 측정입니다). 숨겨진 은잔은 숨겨진 죄책감의 거울입니다. 형제들이 수십 년간 죄를 감추어 왔듯이, 잔 역시 자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탈무드는 마음속에 묻힌 죄가 결국 드러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를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관리가 형제들을 향해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외칠 때, 그 말은 단순한 절도 혐의를 고소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는 형제애가 자기보존으로 바뀌었던 과거의 도덕적 전도를 다시 소환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한때 요셉 형제들의 거짓 증거가 야아콥을 속였듯이, 이제 그 거짓 증거는 형제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면서 폭로합니다.

토라는 이 장면의 전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킵니다. 수색은 맏아들부터 시작하여 막내에게 이르기까지 천천히 진행됩니다. 미드라쉬는 이 지연이 형제들에게 공동의 공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도 남을 가해한 행위의 결과로부터 자신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것 또한 “미다 케네게드 미다”입니다. 먼저 지었던 죄가 공동의 죄였기에, 회개 역시 공동의 책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거나 분산시킬 수 없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장면 중 하나는 은잔이 발견되었을 때 형제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옷을 찢습니다. 요셉이 사라졌을 때 옷을 찢은 사람은 야곱 혼자였습니다. 아들들은 침묵했고, 슬픔은 아버지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형제들 자신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형벌이 내려지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 전환은 결정적입니다. 슬픔이 더 이상 외부로 전가되지 않고, 형제들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미드라쉬는 이 순간을 참된 회개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들은 이미 일어난 상실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상실을 앞두고 애도합니다. 이는 도덕적 감수성이 깊은 내면에서부터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죠하르는 이 장면을 더욱 깊이 해석하며, 잔을 심판의 도구로 보되, 그 심판이 사실상 자비의 한 형태라고 가르칩니다. 회개를 일깨우는 심판은 잔혹함이 아니라 교정과 수보를 위한 긍휼입니다. 베냐민이 모든 과정에서 침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죠하르는 의인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 위함이라고 가르칩니다. 베냐민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도둑으로 몰려가는 시험의 대상은 그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미다 케네게드 미다”的 유대적 이해는 나짜림 갱신서에서도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열방의 땅끝에서 찾아 모으신 이스라엘 네훼쉬 (영혼)의 구원자이신 여호슈아께서 “너희가 해아리는 그 해아림으로 너희가 해아림을 받을 것이라”(마.7:2)라고 가르치셨을 때, 이는 가해한 상대를 똑같이 복수해야 된다는 보복의 교리가 아니라, 미드라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균형잡힌 동등성에 대한 통찰력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6 절에서 숨겨진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할 때, 이는 창세기 44장이 전제하는 동일한 확신을 반영합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은폐된 죄가 내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노출은 “은혜의 적”이 아니라, “은혜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후대의 신학론으로는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요소를 더 담고 있습니다. 대속(substitution)이 구속 (redemption)을 이루기 전에, 책임이 먼저 깨어나야 한다는 핵심점입니다. 이후 예후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홀로 나서는 장면은, 그가 먼저 라헬의 아들을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는 태도를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실로 옮겨지지 않은 진정한 회개 없는 대속은 뿐리없는 나무와

같거나, 새벽 물안개 사라지듯 공허한 것이며, 오직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만 “대속은 도덕적 무게”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창세기 44 장 1-12 절은 신적 정의를 보복이 아니라 교육으로 계시합니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지만, 다른 응답을 요구 받으며 다시 찾아옵니다. 동일한 미혹이 제시되고, 동일한 두려움이 되살아나며, 동일한 가족이 다시 위기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형제들이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명 없이 함께 서며, 한때 시기로 갈라졌던 자리가 이제는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로 묶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긴 치유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난날 있던 일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잠재 하였다가 다시 기억된 사실들을 통해서 참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다 케네게드 미다는 처벌의 논리가 아니라, 회개의 문법입니다. 과거를 정직하게 직면할 때, 그것은 더 이상 심령을 속박하지 않고, “미다 케네게드 미다”의 검증 된 내면의 회개를 통하여, 죄를 대속 받도록 하는 문을 열어 줍니다.

샬롬!